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은퇴불안 및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이 은 주

이 지 연¹⁾

인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중년기 직장인 40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각각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고,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은퇴불안,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각각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은퇴불안이 낮아지고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은퇴불안은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며,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심리적 안녕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은퇴불안 및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이중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는 중년기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상담에서 은퇴불안과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어 개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주요어 : 중년기, 직장인,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부부관계, 심리적 안녕감

1) 교신저자 : 인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교수 (E-mail: becoming@inu.ac.kr)

I. 서론

중년기가 된다는 것은 주요한 인생의 사건 중의 하나로 최초로 생리적 쇠퇴의 징후를 경험하게 되고, 이전의 삶의 결실을 거두어서 누리며 활기와 행복감이 삶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년기가 인생주기에서 중요한 발달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송명자, 2005; Olsho, Harkens & Leinhardt, 1985).

발달 심리학자들은 중년기를 행복의 시기로 간주하고 있지만(송명자, 2005), 역설적으로 한국의 중년기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은주, 2015). 그 이유는 고령화와 산업화된 현대사회가 양성 평등과 교육기회의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의식변화와 함께 최근 국가적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 감원 및 조기퇴직과 은퇴 불안의 증가로 가족해체의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악순환 되고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5.11.10.).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년기 50대 연령의 직장인들은 현재의 행복에 대해서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문화일보, 2015.10.6.). 이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가 중년기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감의 주요 심리적 문제와 상담 시 호소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우종민, 2004). 최근 중년의 실직, 조기 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이 배가되어 중년기 직장인들의 행복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김은희, 남승규, 2015). 이들이 현재 산업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년기의 행복수준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 국가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윤진, 김애순, 1993). 따라서 중년기 직장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은 학자마다 다양한 의미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국내 연구에서 행복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웰빙’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박광희, 2011; 박진경, 2010; 이순목, 1995; 이지은, 손영우, 2008). 행복을 의미하는 안녕감은 쾌락주의에 초점을 둔 주관적 안녕감과 인간 잠재력의 실현과 성장에 초점을 둔 자아실현의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뉜다(Ryan & Deci, 2001). Ryff(1989)는 ‘Psychological Well-Being(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행복이란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이 사회의 구성원인 직장인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며 사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복을 자기실현 관점으로 보는 심리적 안녕감(Ryff, 1989)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중년기 직장인들의 행복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중년기 직장인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것이다.

한편 Baruch와 Barnett(1986), 그리고 Levinson(1986)은 일에서의 능력발휘는 중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고, Gould(1978)와 Neugarten(1975)는 중년기의 위기에서 관계의 중요성이 개인의 정체감 안정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조옥희(2004)와 고경애(2011)의 연구에서도 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만족감은 가족관계의 만족감을 촉진시키고, 다시 가족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직장 업무의 능력을 촉진시키는 순환관계를 보이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와 부부 의사소통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양미화, 2012; 이은아, 정혜경, 2007; 조원지, 한경혜, 2001;), 중년기의 실직, 감원, 비자발적인 퇴직 등은 직장생활의 상실감과 자기능력의 무가치함을 유발시켜서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김정은, 곽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능력과 관계적 측면에서 중년기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능력적 측면에서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목표수행을 위한 행동계획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론에서 도출된 확장된 개념이다(Bandura, 1986; Hackett, Betz, 1981). 자기효능감은 수행경험의 성공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안정된 특성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정과제영역의 수행에 대한 특수적 자기효능감(task-specific self-efficacy)으로 구분되는데(김아영, 박인녕, 2001),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진로의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적 자기효능감에 해당된다(Lent, Hackett, Brown, 1996).

Hackett와 Betz(1981)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업적 장면에서 선택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일에 대한 자신감과 유능성으로 직업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Fletcher, Hansson, & Bailey, 1992). 이러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수행능력, 학습능력, 조직화 기술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직무몰입, 직업만족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을 넘는 수행의 성공 경험으로부터 더 넓은 개인적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시키는 주요 동기이자 요인이다(Fletcher et al., 1992).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업을 도구적으로 보기보다는 삶의 의미의 차원에서 자신의 유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적 보상을 초월한 목표몰입에 일의 의미를 부여하여 직업만족의 향상과 더불어 낮은 스트레스를 보고한 연구결과(Locke & Latham, 1984)는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곽미정, 김영미, 2013; 김금순, 유성모, 2010; 송진영, 2009; 신미진, 송용관, 이철, 2011; 신정인, 강영걸, 김영호, 2010; 오홍석, 하정희, 2010; 이윤구, 윤용진, 2015; 하미경, 윤동열, 2013). 즉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랑과 관계적 측면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는 결혼생활 중 부부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양성 평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가지는 긍정적인 개념이다(김남연, 양난미, 2014). 직업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직업만족도는 부부관계의 결혼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고정자, 1998; 김성일,

2014; 김재현, 조동진, 2002; 박은옥, 2001; 배경희, 김석준, 2012),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장에서 받는 경제적 소득이 꾸준히 높아지거나 유지되었고 더불어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동등한 역할분담으로 가사의 참여도가 높음으로써 건강한 부부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고정자, 1998; 김진분, 최규련, 2007). Pittman(1994), 고숙정, 신성희(2013), 김진경(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부부관계의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증진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부부관계는 심리적 안녕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친밀감, 양성평등, 유사한 가치관의 충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필수적임이 나타나(김태현, 박지현, 2014; 조금숙, 조증열, 2004), 건강한 부부관계의 요인충족이 사람들의 활력과 기분, 자존감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다수의 연구(김미정, 김귀분, 2013; 이수연, 백영주, 박군석, 2009; 한민, 이훈진, 최인철, 김범준, 2013)에서도 건강한 부부관계의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로 등장한 은퇴불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관계성을 보고자 한다. 한국의 급변하는 직업사회 현실을 볼 때, 중년기 직장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은퇴불안은 실제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윤현숙, 이미진, 2007;

이은주, 2014, 2015; 황치정, 2013), 또한 가족 특히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권은비, 이정화, 2011; 성영모, 오제은, 2014; 이옥희, 이지연, 2015; 이주연, 김득성, 2014). 은퇴불안은 Fletcher와 Hansson(1991)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되었으며, 재직자가 은퇴에 대해 경험하는 미래의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 혼란스러운 정서 상태로서 은퇴 후의 적응적 행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Hayslip, Beyerlein, Nichols(1997)는 은퇴불안을 사회적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즉 은퇴불안은 직업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높게 지각하는데, 그 이유는 현직에서 물어나게 되면 동료들에게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은퇴불안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사회적 요인보다는 생존문제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불안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은퇴불안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인 위기이면서 발달단계 상의 중년기 위기와 접점을 이루는 중요한 변인이며, 중년기의 직업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등의 결과 변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불안에 관한 선행연구들(김민정, 김봉환, 2007; 김성옥, 1994; 마석렬, 김인수, 1998; 박현주, 조금호, 2003; 배경희, 김정숙, 2005; 전현정, 정혜원, 2015; 조용래, 2008; 천석준, 이기학, 2008; 허재홍, 2008)은 부적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연구들(노충래, 김설희, 2012; 서석희, 박애선, 2007; 서우경, 김도연, 2013; 송양민, 유경, 2011) 또한 부적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

은 불안과 부적인 관계이며 불안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국내의 은퇴불안 관련 경험적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박정희, 2015)과 은퇴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은주, 2014)에서도 두 변인 간에 부적인 관계가 검증되었다.

세 번째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건강한 부부관계와 은퇴불안이 직접경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를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기 직장인들이 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한 부부관계와 은퇴불안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였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관계,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건강한 부부관계와 은퇴불안이 각각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건강한 부부관계와 은퇴불안이 이중매개 하는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영역

에서 경험하는 자기효능감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은퇴불안과 부부관계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담적인 개입을 초점화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상담 장면에서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큰 은퇴불안의 문제를 갖고 있는 중년기 성인들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부부관계에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그림 1,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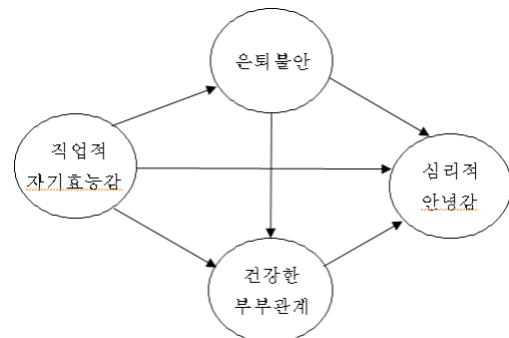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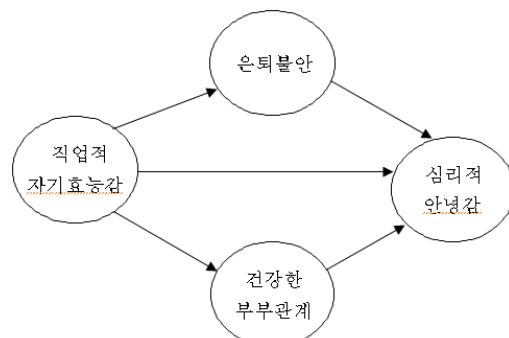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정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지지되고 있다(곽미정, 김영미, 2013; 김금순, 유성모, 2010; 송진영, 2009; 신미진 등, 2011; 신정인 등, 2010; 오홍석, 하정희, 2010; 이운구, 윤용진, 2015; 하미경, 윤동열, 2013). 이를 근거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불안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김사라형선, 2010; 민하영, 2006; 이정순, 2010; 최미경, 2012). 이를 근거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의 직접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즉 연구모형은 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직접경로와 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거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부분매개모형이며, 경쟁모형은 은퇴불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의 직접경로를 삭제한 부분매개모형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및 제주지역의 중년기 40세~65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0명이 연구목적과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 후 이루어졌다. 수집된 총 420명의 자료 중 다수의 문항을 빠뜨리고 응답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0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267명(66.3%), 여자 136명(33.7%)이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250명(62%), 50대 131명(32.5%), 60대 22명(5.5%)의 순이었고,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직 91명(22.6%), 공무원 85명(21.1%), 생산·기술직 80명(19.9%), 영업·서비스직 70명(17.4%), 전문직 49명(12.2%), 사업·자영업 17명(4.2%), 연구직 6명(1.5%), 성직자(목사) 5명(1.2%)의 순이었다.

2. 측정도구

단축형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이정애(2013)에 의해 개발된 단축형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단일요인 구조로서 직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대해 응답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적 자기효능감 1요인의 문항의 예는 ‘나는 임기 응변력이 있어서 직무에서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직무수행 시 어려움에 처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낼 수 있다’이며 Cronbach's α 는 .83이다. 직업적 자기효능감 2요인의 문항의 예는 ‘나는 직무수행 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직무수행 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다’이며 Cronbach's α 는 .74이다. 직업적 자기효능감 3

요인의 문항의 예는 ‘나는 직무수행 시 내가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한다’, ‘나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느낀다’이며 Cronbach’s α 는 .75이다. 응답자는 자신의 직업(직장)의 과업수행 수준에 대해 5점-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하였고 전체 Cronbach’s α 는 .94였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중년기 은퇴불안 척도

이은주(2015)에 의해 개발된 중년기 은퇴불안 척도 MARAS는 은퇴불안에 대한 ‘심리적 요인(5개 문항)’, ‘신체적 요인(5개 문항)’, ‘경제적 요인(5개 문항)’, ‘사회적 요인(3개 문항)’의 4요인(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년기 은퇴불안 수준에 대해 응답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리적 요인의 문항의 예는 ‘은퇴를 생각하면 속상하다’, ‘은퇴를 생각하면 초조하다’이며 Cronbach’s α 는 .96이다. 신체적 요인의 문항의 예는 ‘은퇴 후, 노인성 질병(치매, 우울증, 암, 치과질환, 뇌졸중, 관절염, 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불치병에 걸릴까 두렵다’, ‘은퇴로 인한 신체노화로 체력저하, 기억력 감퇴, 근력감소와 질병이 걱정된다’이며 Cronbach’s α 는 .83이다. 경제적 요인의 문항의 예는 ‘은퇴 후,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노후자금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걱정이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은퇴 후의 월평균 생활비가 얼마정도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이며 Cronbach’s α 는 .80이다. 사

회적 요인의 문항의 예는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들과 계속 연락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나의 사회적 지위(직위), 위치는 은퇴를 하면 상실될 것이다’이며 Cronbach’s α 는 .65이다. 응답자는 자신의 은퇴불안 수준에 대해 5점-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MARAS의 요인별 신뢰도는 심리적 요인이 .96, 신체적 요인이 .84, 경제적 요인이 .74, 사회적 요인이 .68로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고, 전체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김남연, 양난미(2014)에 의해 개발된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는 평등/가치관 요인 10개 문항과 의사소통/친밀감 요인 10개 문항의 2개요인 구조로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수준에 대해 응답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평등/가치관 요인의 문항의 예는 ‘우리 부부는 돈의 사용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사용한다’, ‘우리 부부는 여가활동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각자 따로 보내는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이며 Cronbach’s α 는 .89이다. 의사소통/친밀감 요인의 문항의 예는 ‘우리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서로를 보고 싶어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 잘 통한다고 느낀다’이며 Cronbach’s α 는 .94이다. 응답자는 자신의 건강한 부부관계 수준에 대해 5점-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부부관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하

였고, 전체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5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Ryff(1989)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타당화한 척도의 축약판을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자아의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의 성장'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목적 요인의 구체적 문항의 예는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역문항)',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역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55이다. 자아수용 요인의 구체적 문항의 예는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내 성격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이며 Cronbach's α 는 .43이다. 긍정적 대인관계 요인의 구체적 문항의 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역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37이다. 환경 지배력 요인의 구체적 문항의 예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겹다(역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25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5점-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상에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반영한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요인별 Cronbach's α 는 자아수용 .96, 긍정적 대인관계 .72, 삶의 목적

.73, 개인적 성장 .70, 자율성 .69, 환경통제 .66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75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AMOS 21.0을 사용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이 두 모형 중에 좀 더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였는지 검토한 후, 2단계 방식으로 잠재변수간의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을 위한 측정변수는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개별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고 추정 모수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영석, 2010; Bandalos, 2002; Russell, Ostafichuk, & Scanga, 1998). 측정모형에서 각 잠재변인별로 적어도 2~3개의 측정변인 수를 가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Isaac, Herremans & Kline,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잠재변인 중 단일요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3개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검증과정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χ^2 과 CFI (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와 TLI (Tucker-Lewis index: Tucker & Lewies, 197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 Lind, 1980)이다.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이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면 적당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Bootstrap과 Sobel 검증(Sobel, 1982)이 있는데, Bootstrap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Sobel 검증은 ab 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배병렬(2015)은 Sobel 검증보다는 Bootstrap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은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은퇴불안이 매개를 하는지,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은퇴불안 및 건강한 부부관계가 매개를 하는지와 같은 개별경로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배병렬(2015)의 제안에 따라 Bootstrap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

형에서 정상분포곡선(왜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은퇴불안($r = -.13, p < .05$)은 유의한 낮은 정도의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r = .33, p < .01$)는 유의한 높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r = .45, p < .01$)은 유의한 높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r = -.16, p < .01$)은 유의한 높은 정도의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r = -.37, p < .01$)은 유의한 높은 정도의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건강한 부부관계와 심리적 안녕감($r = .47, p < .01$)은 유의한 높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주요변인 간 상관이 $-.13 \sim .45$ 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변인의 전체 평균값을 살펴보면, 직업적 자기효능감 $3.42(SD = .56)$, 은퇴불안 $3.07(SD = .57)$, 건강한 부부관계 $3.57(SD = .58)$, 심리적 안녕감 $3.48(SD = .41)$ 이었다.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1개의 측정변수들이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

표 1. 주요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 (N = 403)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73**	1															
3	.62**	.70**	1														
4	.91**	.92**	.84**	1													
5	.02	-.03	-.06	-.02	1												
6	-.04	-.10*	-.06	-.07	.16**	1											
7	-.09	-.14**	-.14**	-.14**	.37**	.29**	1										
8	-.09	-.11*	-.11**	-.12*	.49**	.29**	.51**	1									
9	-.07	-.13**	-.13**	-.13*	.72**	.49**	.77**	.85**	1								
10	.22**	.36**	.36**	.35**	-.05	-.12*	-.16**	-.11*	-.15**	1							
11	.19**	.28**	.28**	.28**	-.06	-.11*	-.18**	-.10	-.15**	.75**	1						
12	.22**	.34**	.35**	.33**	-.06	-.12*	-.18**	-.11*	-.16**	.93**	.95**	1					
13	.32**	.43**	.39**	.43**	-.20**	-.16**	-.19**	-.20**	-.26**	.31**	.34**	.35**	1				
14	.24**	.28**	.20**	.27**	-.11*	-.22**	-.24**	-.14**	-.23**	.35**	.34**	.37**	.37**	1			
15	.27**	.39**	.33**	.36**	-.15**	-.37**	-.34**	-.30**	-.38**	.31**	.27**	.31**	.41**	.53**	1		
16	.18**	.28**	.28**	.27**	-.05	-.10*	-.21**	-.21**	-.21**	.25**	.18**	.23**	.33**	.44**	.44**	1	
17	.34**	.47**	.41**	.45**	-.18**	-.30**	-.33**	-.30**	-.37**	.40**	.37**	.41**	.71**	.74**	.84**	.70**	1
M	3.44	3.40	3.40	3.42	3.42	2.92	2.91	2.98	3.07	3.65	3.49	3.57	3.26	3.57	3.45	3.68	3.48
SD	0.65	0.59	0.64	0.56	0.67	0.69	0.75	0.91	0.57	0.58	0.67	0.58	0.56	0.65	0.54	0.44	0.41
왜도	-.33	-.23	-.30	-.28	-.47	.15	.20	-.08	.07	-.38	-.30	-.34	-.35	-.24	-.23	-.12	.20
첨도	.72	.87	.84	1.11	.25	-.002	-.07	-.66	-.21	.94	.70	.87	1.04	.76	1.03	.26	.09
최소값	1	1	1	1	1	1	1	1	1.28	1.40	1	1.20	1	1	1	2.67	2.33
최대값	5	5	5	5	5	5	5	5	4.61	5	5	5	4.67	5	5	5	4.75

주. 1. 직업적자기효능감1, 2. 직업적자기효능감2, 3. 직업적자기효능감3, 4. 전체 직업적자기효능감, 5. 경제적요인, 6. 사회적요인, 7. 신체적요인, 8. 심리적요인, 9. 전체 은퇴불안, 10. 평등/가치관, 11. 의사소통/친밀감, 12. 전체 건강행위부관계, 13. 자아수용, 14. 긍정적대인관계, 15. 삶의 목적, 16. 환경지배력, 17. 전체 심리적안녕감

* $p < .05$, ** $p < .01$.

표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N = 403)

척도	하위요인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직업적 자기효능감	직업 자기효능 1	1.03	.06	17.72***	.79
	직업 자기효능 2	1.09	.06	16.22***	.92
	직업 자기효능 3	1.00			.77
은퇴불안	경제적 요인	.56	.06	9.22***	.58
	사회적 요인	.41	.06	6.84***	.41
	신체적 요인	.73	.07	10.10***	.68
	심리적 요인	1.00			.76
건강한 부부관계	평등/가치관	1.003	.09	11.67***	.93
	의사소통/친밀감	1.00			.81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1.30	.15	8.95***	.60
	긍정적 대인관계	1.69	.18	9.58***	.66
	삶의 목적	1.61	.16	10.25***	.76
	환경지배력	1.00	.10	7.26***	.58

*** $p < .001$.

관계, 심리적 안녕감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변수에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고,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또한 TLI는 .940, CFI는 .956, RMSEA는 .064(.050~.078)로 Browne과 Cudeck(1993)의 기준에 잘 부합되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직

업적 자기효능감 .77~.92, 은퇴불안 .41~.76, 건강한 부부관계 .81~.93, 심리적 안녕감 .58~.76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은퇴불안의 사회적 요인 .41로 낮게 나타났지만,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중년기 성인들 중에서 성별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불안을 낮게 지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의 상관이 낮게 나타났고, 여전히 남성에게는 사회적 요인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이은주, 2015)를 근거하여 중요문항으로 판단하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df	χ^2	TLI	CFI	RMSEA (신뢰구간 90%)
연구모형	59	163.439	.927	.945	.066(.054~.079)
경쟁모형	60	168.023	.925	.943	.067(.055~.079)

여 삭제하지 않았다.

3.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은 163.439, TLI는 .927, CFI는 .945로 수용 가능한 기준치 .9이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는 .066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충족시켰다.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χ^2 은 168.023, TLI는 .925, CFI는

.936, RMSEA는 .067(신뢰구간 .055~.079)을 보여 양호한 수준이었고, 모든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이 낮은 χ^2 의 값을 보이면서 더 높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내생 잠재변수 R^2 의 값은 심리적 안녕감 .52, 건강한 부부관계 .16, 은퇴불안 .03으로 나타나, 적절한 설명량

표 4.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403)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직업적 자기효능감	→	은퇴불안	-.14	.05	-2.69**	-.17
직업적 자기효능감	→	건강한 부부관계	.42	.07	6.3***	.40
은퇴불안	→	건강한 부부관계	-.17	.08	-2.11*	-.15
은퇴불안	→	심리적 안녕감	-.32	.06	-5.47***	-.37
건강한 부부관계	→	심리적 안녕감	.17	.04	4.69***	.28
직업적 자기효능감	→	심리적 안녕감	.25	.04	5.97***	.38
직업적 자기효능감	→	직업 자기효능1	1.03	.06	16.22***	.77
직업적 자기효능감	→	직업 자기효능2	1.09	.06	17.72***	.92
직업적 자기효능감	→	직업 자기효능3	1.00			.79
은퇴불안	→	경제적 요인	1.00			.58
은퇴불안	→	신체적 요인	1.31	.15	9.02***	.68
은퇴불안	→	사회적 요인	.73	.11	6.40***	.41
은퇴불안	→	심리적 요인	1.78	.19	9.22***	.76
건강한 부부관계	→	의사소통/친밀감	1.00			.81
건강한 부부관계	→	평등/가치관	1.003	.09	11.67***	.93
심리적 안녕감	→	자아수용	1.00			.60
심리적 안녕감	→	긍정적 대인관계	1.30	.13	9.78***	.66
심리적 안녕감	→	삶의 목적	1.23	.12	10.48***	.76
심리적 안녕감	→	환경 지배력	.77	.09	8.95***	.58
R^2		심리적 안녕감 .52, 건강한 부부관계 .16, 은퇴불안 .03				

** $p < .01$. *** $p < .001$.

표 5. 최종모형의 총효과 분해 및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N = 403)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I)
직업적 자기효능감	→	은퇴불안		-.17*	-.17*	
직업적 자기효능감	→	건강한 부부관계		.40**	.40**	
직업적 자기효능감	→	은퇴불안	→			.04* (.01~.08)
직업적 자기효능감	→	건강한 부부관계	→			.09** (.06~.14)
은퇴불안	→	건강한 부부관계		-.15*	-.15*	
은퇴불안	→	심리적 안녕감		-.38**	-.38**	
건강한 부부관계	→	심리적 안녕감		.29**	.29**	

주. 표에 제시된 간접효과는 '비 표준화'된 수치임.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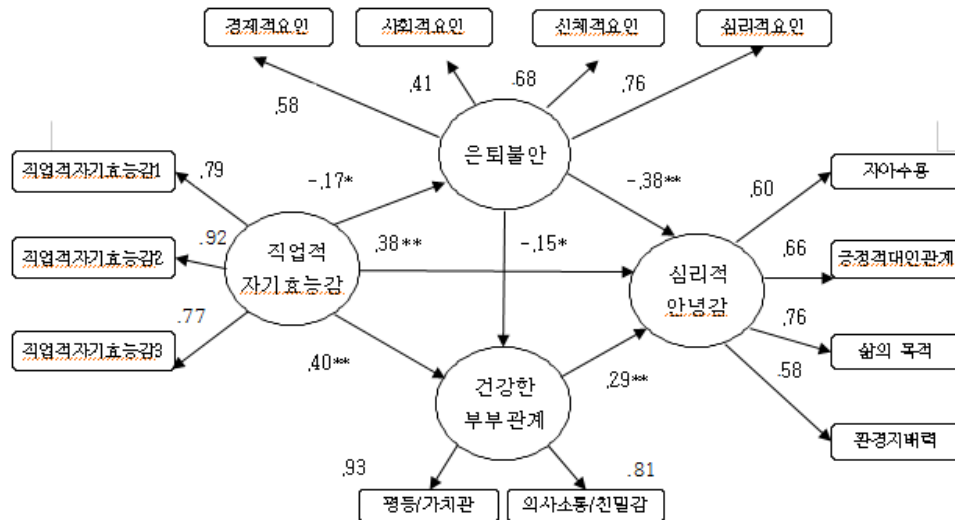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 표 5. 매개효과 검증(팬텀변수 활용)
5, 그림 3과 같다.

4. 최종모형의 검증

최종적으로 선택된 구조모형에 포함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원 자료($N=403$)로부터 무선할당으로 형성된 10,000개의 표본에서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르면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의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부트스트랩의 표준화 수치로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였고,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랩의 팬텀변수로 검증한 비표준화 수치로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였다.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은퇴불안에 -.17, 건강한 부부관계에 .40, 심리적 안녕감에 .38의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은퇴불안은 건강한 부부관계에 -.15의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은퇴불안과 직업적 자기효능감 각각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사용한 다중 매개의 유의도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배병렬, 2015), 은퇴불안은 .04의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09의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경로들을 중심으로 Bootstrap 절차를 실시한 결과(홍세희, 2001; Baron & Kenny, 1986), 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2개의 간접경로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심리적 안녕

감으로 가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의 8개 지역의 중년기 40세~65세의 기혼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40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기 직장인이 지각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의 역할을 규명하고, 본 연구를 통해 중년기 직장인의 행복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 향상과 중년기의 위기사건인 은퇴에 대한 은퇴불안 예방 및 치료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각각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고,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은퇴불안,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각각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낮아지고,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며, 심리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났다. 즉 직업장면에서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직업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이 은퇴 후의

예측되는 삶에서의 재취업 또는 취미, 여가생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져 은퇴에 대해 막연히 갖게 되는 은퇴불안을 낮게 지각하게 된다. 또한 직장에서는 경제적 소득이 꾸준히 높아지거나 유지되고, 가정에서는 부부의 동등한 가사역할 분담으로 건강한 부부관계에 유지하게 되어(고정자, 1998; 김진분, 최규련, 2007),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의 의사소통, 친밀감, 양성평등, 유사한 가치관의 충족요인 등으로 중년기의 행복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김태현, 박지현, 2014; 조금숙, 조중열, 2004). 이상의 결과는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불안이 낮고(김민정, 김봉환, 2007),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며(고숙정, 신성희, 2013),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김금순, 2011; 김수지, 정문자 2010; 김은희, 이종한, 2005; 김의철, 박영신, 2006; 신유경, 최연실, 2013; 이경열, 2009; 허지연, 손은정,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신미, 김순이, 2008; 최외선, 최선남, 서월금, 2007)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곽미정, 김영미, 2013; 송진영, 2009; 오홍석, 하정희, 2010)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증가될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만한 결혼생활의 부부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조혜숙, 최수일, 2011).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직접효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 그 자체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단일변인으로 유의미하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결과(Hahn, Binnewies, Sonnentag, & Mojza, 2011)와 마찬가지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은퇴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겠다.

둘째, 은퇴불안이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며,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퇴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의 주요한 예측변인(이은주, 2014, 2015)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은퇴불안을 낮게 지각하게 되고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한 부부관계는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며,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능력적인 측면으로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발휘를 하게 되고, 다시 관계적인 측면으로 부부관계에서 만족감을 보임으로써 삶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은퇴불안 및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주는 이중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은퇴하는 경우 은퇴 스트레스가 결혼 불만족으로 이어져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선영, 윤혜영, 2013)와 은퇴경험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주연, 김득성, 2014)와 같이 은퇴불안과 부부관계는 주요한 관련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낮은 은퇴불안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촉진시키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증가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낮은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는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주요한 매개 변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또한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건강한 부부관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낮은 은퇴불안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관계, 심리적 안녕감을 하나의 모형으로 연구하여 은퇴불안과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결과와 직접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미 형성된 자기효능감 또는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며(Fry et al., 2012), 과거의 자기효능감 경험자체에 대한 탐색이나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통찰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은퇴불안과 건강한 부부관계 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년기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상담에서 치료적 개입의 초점으로 삼아야할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용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경기, 인천 등의 8개 지역에서 자료수집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중년기 직장인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직업적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건강한 부부관계, 심리적 안녕감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중년기 직장인의 주관적인 자기보고는 실제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방어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사회적 불만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구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특수적 부분으로서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국내외 경험적 연구가 아직 많이 미흡한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경로와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별, 직업별의 동일한 표본의 크기로 매개모형 차이검증과 다집단 분석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은퇴불안의 영향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중년기 위기와 현재 한국의 사회적 위기로서 은퇴불안의 어려움을 겪는 중년기 직장인을 상담할 때,

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룰 가능성이 큰 심리내적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직장면에서 행복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 문제와 은퇴불안을 호소하는 중년기 직장인들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치료적 접근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경애 (2011). 여성목회자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역할 몰입,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숙정, 신성희 (2013). 치매지식, 자기효능감 및 우울이 노인부부의 치매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커플 관계자료 분석방법적용. *대한간호학회지*, 43(2), 276-286.
- 고정자 (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곽미정, 김영미 (2013). 여성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유형이 심리적 안녕감, 여가만족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차이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634-2649.
- 권은비, 이정화 (2011). 은퇴한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은퇴관련변인과 부부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73-92.
- 김경은, 곽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한국 직장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 *인간발달연구*, 18(3), 135-155.
- 김금순 (2011).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금순, 유성모 (2010).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6, 19-53.
- 김남연, 양난미 (2014).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25-50.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1), 415-442.
- 김미정, 김귀분 (2013).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동서간호학연구지*, 19(2), 150-158.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사라형선 (2010).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55-66.
- 김선영, 윤혜영 (2013). 은퇴남성의 은퇴 스트레스, 성격강점, 결혼 불만족이 은퇴 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53-576.
- 김성옥 (1994). 자기효능감이 불안감의 중계변인으로서 귀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5(1), 3-18.
- 김성일 (2014). 직업군인들의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직무만족도 및 조직

-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지, 정문자 (2010). 가족상담: 가족상담자의 상담관련 전문성이 부부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289-1304.
- 김신미, 김순이 (2008).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81-291.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은희, 남승규 (2015). 베이비부머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
- 김은희, 이종한 (2005).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6-157.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1-28.
- 김재현, 조동진 (2002). 사회체육 경영,관리,행정,정책 편 : 체육행정조직구성원의 직업만족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1), 205-215.
- 김진경 (2014). 부모기 전이에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 -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1), 1-17.
- 김진분, 최규련 (2007). 가족상담 : 군인부부의 의사소통과 직업만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4), 1677-1692.
- 김태현, 박지현 (2014). 배우자를 부양하는 여성노인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과 정책 방향: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부부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169-185.
- 노충래, 김설희 (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적이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에 대한 개인요인 및 사회적 지지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9, 39-68.
- 마석렬, 김인수 (1998). 경쟁불안에 따른 주의집중의 양상과 자기효능감이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1), 69-86.
- 문화일보 (2015.10.6.). 50대 리포트 ‘궁핍한 유년→ 산업황금기’ 성공경험...긍정평가 많아. 왜 만족도가 높은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601030821080001>에서 2015년 12월 10일 인출.
- 민하영 (2006). 어머니의 집합주의 가치 및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공격/불안 행동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51-152.
- 박광희 (2011). 웰빙 라이프스타일, 웰빙태도, 삶의 만족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9(7), 39-49.
- 박은옥 (2001). 유배우 근로자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3), 661-669.
- 박정희 (2015). 가족기능성과 자기효능감이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 (2010). 여가만족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관광연구, 16, 45-60.
- 박현주, 조금호 (2003). 고등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우울, 불안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인간이해, 24, 127-148.
- 배경희, 김석준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 조절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4(3), 5-27.
- 배경희, 김정숙 (2005). 자기주장훈련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환자의 불안, 자기효능감 및 주장행동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11(1), 137-148.
- 배병렬 (2015).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석희, 박애선 (2007).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07-130.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분석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우경, 김도연 (2013).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어머니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21-136.
- 성영모, 오제은 (2014). 은퇴자 부부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65, 251-280.
- 송명자 (200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양민, 유 경 (2011).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54, 111-134.
- 송진영 (2009). 중년 취업남성의 다중역할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59-81.
- 신미진, 송용관, 이 철 (2011). 인문, 사회과학편: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 자아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0(4), 333-346.
- 신유경, 최연실 (2013).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능감, 부부갈등 및 산전우울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155-176.
- 신정인, 강영걸, 김영호 (2010). 대학생의 대상관계가 분리개별화,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 189-212.
- 양미화 (2012). 남성 은퇴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15.11.10). ‘가족해체의 그늘’.... 죽어서도 외면받는 무연고 시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9/0200000000AKR20151109147800004.HTML?input=1195m>에서 2015년 12월 10일 인출.
- 오홍석, 하정희 (2010). 동기특성 변인들이 공기업 직장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 업무동기,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515-532.
- 우종민 (2004). 통합적 직장 정신건강증진 프

- 로그래밍 개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보고서, 28.
- 윤진, 김애순 (1993). 중년기 위기감(1): 그 시기 확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1), 1-16.
- 윤현숙, 이미진 (2007). 은퇴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2), 393-408.
- 이경열 (2009). 행복증진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0(2), 1259-1275.
- 이수연, 백영주, 박군석 (2009).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3, 1-181.
- 이순목 (1995). 삶의 질의 심리학: 직업생활의 질과 인생의 질.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자료집, 77-112.
- 이옥희, 이지연 (2015). 역경후 성장과 적응모형 검증: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22(3), 111-133.
- 이윤구, 윤용진 (2015). 유아 부모의 운동행동 변화단계와 신체적 자기효능감, 감사성향,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6, 73-88.
- 이은아, 정혜경 (2007).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301-329.
- 이은주 (2014). 중년기 남성의 사회적 은퇴불안과 직업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5). 중년기 은퇴불안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6(4), 435-458.
- 이정순 (2010). 부부관계가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 및 유아의 정서불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3), 37-56.
- 이정애 (2013). 단축형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4(2), 1093-1106.
- 이주연, 김득성 (2014). 은퇴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 심리적 건강, 은퇴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단기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5(2), 903-924.
- 이지은, 손영우 (2008). 주관적 안녕감과 정서가 있는 사건에 대한 기억: 긍정적인 사건을 인식하는 비율과 기억 재구성의 관계. 감성과학, 11(3), 397-418.
- 전현정, 정혜원 (2015). 중학생의 시험불안,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관계-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247-274.
- 조금숙,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옥희 (200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래 (2008). 시험불안에서 상위인지의 역할: 우울수준, 실수에 대한 완벽주의적 염려, 학습기술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넘어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709-727.
- 조원지, 한경혜 (2001). 직업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2.

- 조혜숙, 최수일 (2011).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1), 313-328.
- 천석준, 이기학 (2008). 신경증, 불안, 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경로모형 검증: 조절초점이론의 관점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93-110.
- 최미경 (2012). 부부갈등 및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3(5), 163-180.
- 최외선, 최선남, 서월금 (2007).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자기효능감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2), 193-212.
- 하미경, 윤동열 (2013).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및 개방성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0(5), 157-177.
- 한 민, 이훈진, 최인철, 김범준 (2013). 60대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의 연령대별 비교. *한국노년학*, 33(3), 661-679.
- 허재홍 (2008). 사회불안 발생과정에 자기효능감과 체험회피가 미치는 영향-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73-1189.
- 허지연, 손은정 (2008). 청년기와 중년기 집단에서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0-34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황치정 (2013). 전문직 남성은퇴자와 은퇴예정자의 자원봉사몰입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관계망, 자원봉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s: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uch, G. K., & Barnett, R. C.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578.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 238-24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Fletcher, W. L., & Hansson, R. O. (1991). Assessing the social components of retirement anxiety. *Psychology and Aging*, 6, 76-85.
- Fletcher, W. L., Hansson, R. O., & Bailey L. (1992). Assessing occupational self-efficacy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1(4), 489-501.
- Fry, M. D., Guivernau, M., Kim, M., Newton, M., Gano - Overway, L. A., & Magyar, T. M. (2012). Youth perceptions of a caring climate, emotional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1(1), 44-57.
-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Hackett, G., & Betz, N.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hn, V. C., Binnewies, C., Sonnentag, S., & Mojza, E. J. (2011). Learning how to recover from job stress: Effects of a recovery training program on recovery, recovery-related self-efficacy, and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6(2), 202-216.
- Hayslip, B., Beyerlein, M., & Nichols, J. A. (1997). Assessing anxiety about retirement: The case of academicia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44(1), 15-36.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Isaac, R. G., Herremans, I. M., & Kline, T. J. (2010). Intellectual capital management enabler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3(3), 373-391.
- Lent, R. W., Hackett, G., & Brown, S. D.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studying career choice and transition to work.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1(4). 3-31.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 Locke, E. A. & Latham, G. P. (1984), *Goal setting: A motivational technique that work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Neugarten, B. L. (1975). Adult personality: Toward a psychology of the life cycle. In W. C. Sze (Ed.), *The human life cycle*. New York: Jason Aronson.
- Olsho, L. W., Harkens, S. W., & Leinhardt, M. L. (1985). Aging and the auditory system.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202-612.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Pittman, J. F. (1994). Work family fit as a mediator of work factors on marital tension:

- Evidence from the interface of greedy constitutions, *Human Relations*, 47(1), 456-665.
- Russell, M. A., Ostafichuk, L., & Scanga, S. (1998). Lethal P-lacZ insertion lines expressed during pattern respecification in the imaginal discs of *Drosophila*. *Genome*, 41(1), 7-13.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teiger, J. H., & Lind, J. M. (1980, June). *Statistically bases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Tucker, L. R., & Lewies, C. A.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1 차원고접수 : 2016. 01. 10.
수정원고접수 : 2016. 02. 09.
최종게재결정 : 2016. 03. 02.

The Effect of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Middle-Aged Workers: The Mediating Effect of Retirement Anxiety and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Lee, Eun-joo

Lee, Jee-yon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self-efficacy of middle-aged worke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mediating effect of retirement anxiety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Participants consisted of 403 middle-aged workers living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ntrast,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retirement anxiety and retirement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hen occupational self-efficacy was high, retirement anxiety was low and marriage relationship was high, leading to high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retirement anxiety had mediating effect i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as well 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career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career self-efficacy wa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in double mediating path through influencing retirement anxiety and healthy marriage relationship. This study provided information on intervention focusing on retirement anxiety and marriage relationship in consultation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office workers.

Keywords: middle age, worker, occupational self-efficacy, retirement anxiety, marriage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